

alice in wonderland

GAME.ANI.2010

시계토끼

앨리스를 이상한나라로 오게 된 계기를 만든 캐릭터.
커다란 시계를 들고다니면서 언제나 시간을 보고 항상 바쁘다고 한다.
(53cm)

- 제작의도

예전부터 동화 같은걸 보는걸 좋아했다. 그 중에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"이상한나라의 앨리스"라는 동화를 한번쯤은 나만의 그림체나 생각을 가지고 그려보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다.

- 배경

조선시대/서양과 동양의 조화

- story

조선시대에 나쁜한여름 오후, 언니가 읽어주는 역사 얘기를 들으며 졸고 있던 앨리스는 하얀 토끼가 뛰어가는 걸 보고 뒤를 쫓아간다. 토끼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 그곳은 완전히 신비한 세계다. 꽃과 동물들이 말을 하고, 먹으면 커지는 케익과 마시면 작아지는 음토수 등 이상한것들이 많은 곳이다. 하지만 암전히 구경을 하며 있을 앨리스가 아니었기에 이 이상한 나라를 자신이 가지고 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.

※색상표

■	#2c2c2c
■	#b4a85f
■	#fdb900
■	#495b7f
■	#d75a48
■	#f285c3

